

TALK² [특투]

CSG

CSG Magazine

Vol.12

2025년 10월호

TALK²
EACH OTHER.
EXCHANGE
IDEAS.
STAY CONNECTED.

Contents

The Spiritual Leader,

세상을 읽다

찰나에 담긴 회장님의 깊은 통찰 6

질문의 힘

The AceMaker

창신인, 에이스메이커들의 이야기

특뷰 [TALK² + Interview] 9

기획 리브랜딩, 변화를 넘어 기준을 정립하다

One in a Million 15

향기와 온도로 완성되는 순간

CEO 두줄 노트 18

지행격차

Manufuturing

창신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MX Designer 21

AI 혁신그룹

CSG News Pick (#창_뉴_픽) 26

#Development #DE&I #Data Scientist #SHC #수상

Trend Catcher 32

News Clipping 7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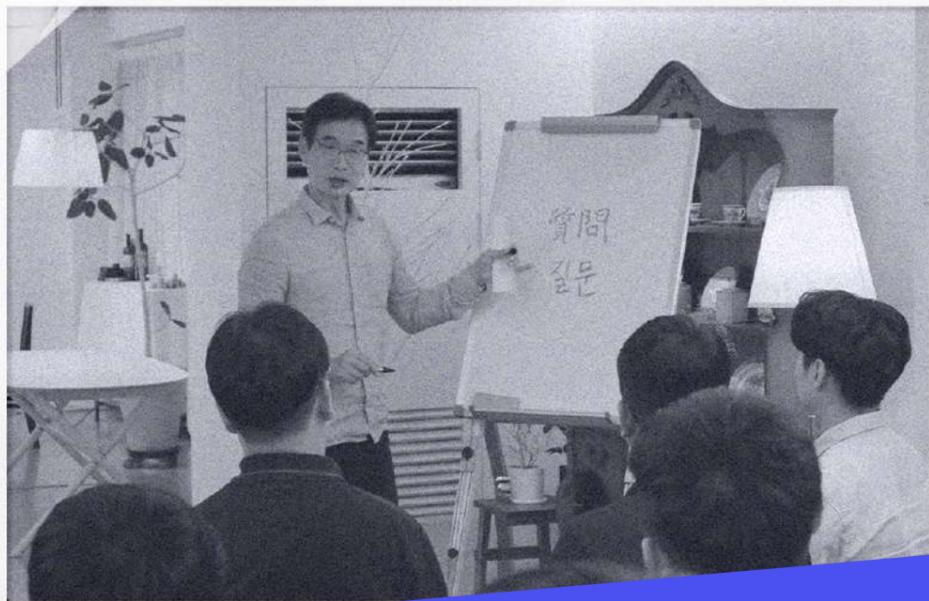
The Spiritual Leader, 세상을 읽다

찰나에 담긴 회장님의 깊은 통찰



The Spiritual Leader, 세상을 읽다

찰나, 한 장에 담다



'질문(質問)'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향한 물음이다.
 본질을 묻는 질문은 타인에게 지식을 드러내거나 과시하려는 질문과는 다르다.
 질문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르는 것을 탐구하며 스스로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내면의 추진력이다.

좋은 질문은 생각의 깊이를 확장시키고,
 그만큼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세상의 모든 질문에 정답이 있다고 믿는 것은 큰 착각이다.

가장 훌륭한 질문은 정답이 없는 질문이다.

훌륭한 발명가, 철학자, 기업가들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낼 때,
 과연 정답은 존재했을까?

**질문은 호기심에서 시작해 의구심으로 다듬어지고,
 불편함을 딛고 나아가는 실천 속에서 완성된다.**

The AceMaker

창신인, 에이스메이커들의 이야기

The AceMaker

The AceMaker | 특부

특부 [TALK² + Interview]

창신 에이스들의 성장 스토리와 도전을 집중 조명합니다

기획 리브랜딩, 변화를 넘어 기준을 정립하다

리브랜딩은 단순히 로고나 컬러를 바꾸는 일이 아니다.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존재 이유를 다시 세우고, 앞으로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다. 2023년 8월, 창신은 All Staff Meeting에서 새롭게 정립한 CSG 가치체계와 Visual Identity를 공개하며 리브랜딩을 선포했다. 이는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이를 행동으로 옮기며, 변화의 방향을 실제 성과로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흐름은 2025년 9월, SHC(서흥)으로 이어졌다.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을 선포한 SHC의 리브랜딩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선명히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단순 신발 제조를
넘어

창신의 기준, CSG 가치체계

“가치를 기준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창신은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차세대 시스템 도입과 AI·생산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이전에 없던 신발 제조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의사결정의 순간마다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만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바로 가치체계이다. 이는 업무 결정부터 전략적 선택까지,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기준점이 된다.

가치체계 Value Platform

존재이유	우리의 영감으로 모두의 가능성을 키워줍니다 Inspiring all to maximize their possibility
업의 본질	제조 경험을 디자인하는 기업 Manufacturing eXperience Designer
미션	우리는 제조 경험을 새로 설계하여 Progress ware*를 만듭니다 Creating Progress ware by redesigning MX
브랜드 에센스	에이스메이커 ace making aces
CREDO	도전 끈기 협업 혁신 존중

*Progress ware: 사람과 세상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를 포함한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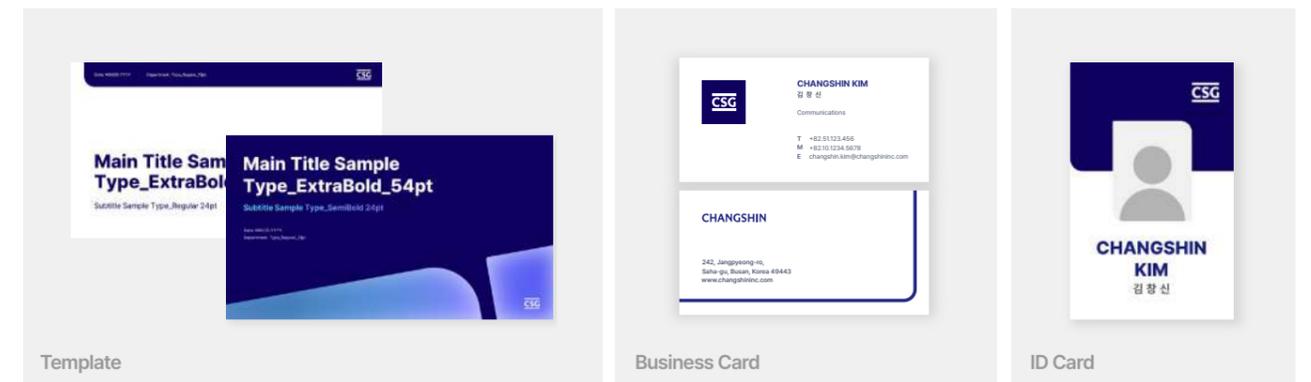
CSG 가치체계를 구성하는 존재 이유, 업의 본질, 미션은 무엇일까?

창신의 존재 이유는 7만 명이 넘는 직원들과 고객사에 영감을 주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가능성을 키워가는 데 있다. 업의 본질은 단순 신발 제조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제조와 관련된 모든 제조 경험을 디자인하는 기업, Manufacturing eXperience Designer이다.

우리는 고객사에 제품 그 자체만을 제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제조 경험을 새로 설계하여 Progress ware, 제품과 제품이 창출할 수 있는 모든 밸류를 함께 제공하여 고객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자 지향점이다.

Creating Progress ware

Applications



SHC, Total Solution Provider로 도약

“연결 그 이상의 가능성을 이끈다”

SHC(서흥)의 리브랜딩은 기업의 본질과 핵심가치를 다시 정의하고, SHC만의 고유한 속성으로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과 파트너, 구성원 모두에게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SHC 임직원들은 이번 리브랜딩이 단순한 외형 변화가 아닌, 모두가 자긍심을 느끼고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는 능동적이고 활기찬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았다.

Connect,
C의 의미가 새롭게 정의

유연하며 혁신을 지향하는
기술 기반의 동적인 이미지로

내부 계열사 간 연결, 외부 비즈니스 확장, 미래와의 점점 확보

공동의 목표

Connect

One Team 문화

신발 업계의 토탈 솔루션

미래 지향적이고 확장성을 바탕으로

임직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브랜드 상징성 필요

경청하고 수용하려는 태도

-SHC 임직원 인터뷰 내용 발췌

Start Here, Shift Higher. Connect Ahead.

SHC는 단순한 제조 공급사를 넘어,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기술과 사람, 경험과 기회를 통합하여 가치를 시작하고(Start Here), 더 높은 방향으로 도약하며(Shift Higher), 미래를 향한 연결을 주도(Connect Ahead) 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연결을 초월하여, 사람과 기술, 경험과 기회를 통합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가는 SHC의 철학을 담고있다. 직원 간, 부서 간,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경계를 허물고,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SHC만의 역동성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9월 30일, SHC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와 시각체계를 전사에 공개하며 'Total Solution Provider'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단순한 네이밍 변경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내부 구성원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SHC Logo & Color



SHC의 새로운 로고는 앞으로 나아갈 **성장**과 **연결**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SHC를 대표하는 컬러는 'Radical Violet'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창신의 Infinite Blue에 진보와 혁신을 향한 SHC의 강한 의지와 에너지를 더해 탄생했다. 아무도 하지 않은 새로운 도전과 연결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SHC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Applications



Template



ID Card



Business Card



백만 명 중 하나

창신인만의 특별한 이야기

ONE *maximize our possibility* IN A MILLION

숨겨진 재능과 독창적인 감각으로 반짝이는 창신인들의
다채로운 삶과 열정을 공유합니다. 각자의 개성과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창신인만의 유일무이한 가치를 조명합니다.

백만 명 중 하나, 내 주변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창신인을 알려주세요!
하단 제보하기 버튼을 누르면 구글 폼으로 연결됩니다.

- "테니스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 3연패"
- "힙합부터 왁킹까지, 10년차 스트릿 댄서"
- "다이빙 자격증만 5개, 프리다이버"

제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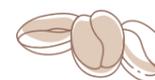
EP.05

향기와 온도로 완성되는 순간

: 커피로 취향을 확장하다

ES팀 반성준 님

하루를 여는 커피 한 잔. 누군가에게는 그저 일상일 뿐이지만, ES팀 반성준에게는 늘 새로운 것을 찾는 여정이다. 익숙한 맛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시도하며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도전한 그는, 한 잔을 담아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오롯이 즐기는 진정한 커피 애호가이다. 단순한 루틴을 넘어, 그의 일상의 깊이를 더해주는 특별한 동반자가 된 커피. 반성준이 전하는 커피에 관한 취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커피가 선물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반복되는 일상 속 새로움을 더하다

출장으로 시작된 커피와의 인연

처음에는 여느 직장인들처럼 하루 한 잔 정도 가볍게 커피를 즐기다, 해외법인 출장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빠지게 되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모두 세계 원두 생산량 TOP 5 안에 드는 커피 강국인 만큼, 원두를 직접 갈아 마시는 드립 커피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원두를 고르고, 분쇄하고, 추출하며 한 잔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인스턴트 커피나 카페의 제조된 커피를 마실 땐 몰랐던 색다른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생겨난 흥미는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보겠다는 열정으로 이어져, 귀국 후 곧바로 바리스타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이후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도전해 두 달 간의 노력 끝에 한번에 합격할 수 있었다.

핸드드립이 선사하는 진정한 한 잔

수많은 커피 추출 방식 중에서도 손으로 직접 물을 부어 내리는 **핸드드립 방식을 가장 선호한다**. 짧은 시간 강한 압력을 가해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일반적인 커피 머신과는 달리, 오직 중력만으로 천천히 커피를 내리기에 원두 본연의 맛과 향이 자연스레 담긴다. 커피의 맛만큼이나 향을 중시하는 편이라,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는 과정 자체를 즐긴다. 원두 봉투를 열 때 퍼지는 첫 번째 향, 그라인더에 갈았을 때의 두 번째 향, 물을 붓고 커피가 우러나올 때 피어오르는 마지막 향까지. 그 모든 순간이 **진정한 커피 한 잔을 음미하는 시간**이다.

커피로 탐구하는 낯선 즐거움

아는 맛, 이미 경험해본 맛보단 **새로움이 느껴지는 커피**를 좋아한다. 한 모금에서 느껴지는 낯선 자극이 익숙한 맛보다 큰 즐거움을 준다. 산미가 있는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혀는 신맛보다 쓴맛에 더 빨리 적응하기에, 자주 마실수록 쓴맛만 있는 커피보단 산미가 있는 커피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 원두를 고를 때도 **매번 새로운 원두에 도전한다**. 몰랐던 맛을 발견하며 **취향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이 또 다른 즐거움이자 배움이다.



#바리스타 자격증 실습 중



#벌써 10년차 바리스타

Busan 부산



모모스 커피



블랙업 커피



빈스톡

커피에 진심이라면 여기는 꼭! 커피 맛집 추천



Jeju 제주



스테이 워드 커피

Vietnam 베트남



Phúc Long

USA 미국



Stumptown coffee

원두로 떠나는 세계 여행

원두는 생산지에 따라 크게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아프리카 원두(에티오피아, 케냐, 부룬디 등)는 과일 향의 산미가 특징으로, 맛보다는 향에 강점이 있다. 산미를 좋아하고, 향을 중시하는 편이라 가장 선호하는 원두이다. 반대로 남미의 원두(파나마, 과테말라, 브라질 등)는 향보단 입에 머금었을 때 묵직한게 느껴지는 바디감이 매력이다. 아시아의 원두(인도네시아, 베트남 등)는 풍미가 독특해 마니아층이 있는 편이다.

이처럼 각 지역의 고유한 기후, 토양, 재배 방식 등에 따라 커피의 특성도 달라지니, **지역별로 각각 어떤 매력이 있는지 비교하는 것도 즐거움 중 하나**. 여행을 갈 때도 추출 장비를 챙겨 현지 원두를 맛보는 것이 어느새 루틴이 되었다.

나만의 '소확행', 커피

바쁜 업무 중에서도 잠시 짬을 내어 커피를 내리고 마시는 시간은 나에게겐 **심표**와도 같다. 가끔은 팀원들을 위해 커피를 직접 내려주기도 한다. 각자 커피의 맛을 평가하며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는 시간은 나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되어준다. 혹시 커피에 대해 궁금하거나, 재미를 붙여보고 싶은 창신인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도 좋다!



사무실 한 켠, 늘 대기 중인 핸드드립 장비들

CEO 두줄 노트

사장님의 생각과 통찰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칼럼으로, 격월지로 전후 두 달 간의 사장님의 인사이트를 두 문장, 두 문단 형식으로 전합니다



지행격차

지행격차(The Knowing-Doing Gap)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실행하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말한다. 이 격차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분석과 불필요한 우려, 그리고 조직 내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한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쉽게 생각하고, 작은 일부부터 빠르게 실행하며, 피드백의 반복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리더가 실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실행하는** 것이다.

* *The Knowing-Doing Gap - How Smart Companies Turn Knowledge into Action.* Jeffrey Pfeffer, Robert I. Sutton |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 December, 1999

Manufuturing

창신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Manufacturing + Future

Manufacturing | MX Designer

MX Designer _ Manufacturing eXperience Designer

MX Designer들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부서 및 팀 소개를 통해 일상 속 성장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전에 없던 방식의 신발 제조 혁신을 이끌고 있는 AI 혁신그룹. 생산 설비를 지능화하는 MI (Machine Intelligence)팀과 업무 자동화와 지능화를 고민하는 IPA(Intelligent Process Automation)팀의 여정엔 '최초'라는 수식어가 일상이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신발 제조의 접점을 끊임없이 탐색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는 이제 창신을 움직이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다. 변화를 따라가는 대신, 스스로 만드는 사람들. 이들의 집념과 열정 속에서 AI 혁신은 창신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며, 오늘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제조 혁신의 시작 설비 지능화로부터

“생산 설비에 청진기를 달아
보이지 않는 신호를 데이터로 읽다”

온도, 진동, 압력 데이터로 설비를 실시간으로 진단



#Data as a Service #클라우드 #실시간

#데이터 체크!

900
February



MI팀 신승훈님 인터뷰

새로운 영역에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을 즐기는 MI팀 신승훈. 생산 설비 지능화를 위한 현장 구축부터 데이터 정교화, 플랫폼 구현까지. 임직원이 데이터를 활용해 가치를 만들어가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그의 여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Q MI팀 소개 좀 해달라

MI(Machine Intelligence)팀은 생산 설비를 지능화하는 역할을 한다. 가전제품의 상태나 부품 수명을 휴대전화로 바로 확인하듯, 생산 설비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내보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능화다. 이를 통해 설비 이상을 사전에 감지하고 불량률을 줄이며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현재는 지금의 공장을 그대로 옮긴 3D 가상공간, '디지털 팩토리 트윈(Digital Factory Twin)'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장 운영이나 투자 시뮬레이션을 사전에 진행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Q JJ 바텀 설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다고

올해 2월부터 JJ에서 'BTX(Bottom Excellence)'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핵심은 바텀 설비를 지능화해, 문제를 '발생 후'가 아닌 '징후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제품 불량이나 설비 고장이 발생한 뒤에야 원인을 거꾸로 추적했지만, 이제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의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예상되는 이슈를 사전에 담당자에게 알림으로 전달하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첫 단계로 아웃솔 원재료를 섞는 Intensive Mixer와 미드솔 설비인 IP, Pylon의 지능화 작업을 하고 있다. 품질과 설비 고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센서 종류를 확정하고, 센서 위치를 수차례 옮겨가며 테스트를 반복해 가장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확보했다. 현재는 한 설비에 최대 12개의 센서를 부착해 온도와 압력, 진동 등 설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Q 기억에 남는 순간

앞으로는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JJ 바텀 설비에서 축적되고 있는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해, 신뢰도가 낮은 값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정밀 식별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다. 이 정제된 데이터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되어, 10월 말 첫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 설비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해, 임직원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조회·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지금까지는 각 하드웨어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실시간 공유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인 간 설비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6개월간 유관 부서와 협업하며 수십 개의 체크리스트를 검토했고, 플랫폼 설계 구조를 매주 재검토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현재는 실제 구축 단계에 들어섰으며, 12월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Q 하고 싶은 말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여 실질적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사용자의 참여와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이다. 오는 12월 오픈할 플랫폼이 우리 회사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 부탁드립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 AI로 변화를 이끈다

“반복된 업무는 자동화로
창신인은 고부가가치에 집중”

QRC AI Chatbot
Work with CHANGSHIN AI

Docs : Chat with CSG data

Multi turn
↓
Intent
↓
Dialog

#QRC #창신챗봇 #검색물관부



IPA팀 최병두님 인터뷰

끊임없는 배움과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팀의 주축이자 AI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는 IPA팀 최병두. 창신인이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자동화하는 환경을 만드는 그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Q IPA팀 소개 좀 해달라

IPA(Intelligent Process Automation)팀은 업무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팀이다.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활용해 엑셀 수기 입력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AI 챗봇 QRC (Quick Response Center)를 통해 사내 지식과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처럼 규칙적이지만 루틴한 업무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임직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고부가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IPA팀이 추구하는 핵심 목표다.

Q 업계 최초 AI 챗봇 QRC, 어려움은 없었나

QRC는 3년간의 검증과 2차례의 시범 운영을 거쳐 완성됐다. 당연히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업계 최초의 시도였기 때문에 참고할 사례가 없었고, 신발 개발 정보의 특성상 데이터 구조가 복잡하고 비정형적이라 기성 프로그램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웠다. 게다가 제한된 개발 기간 안에 핵심 기능을 모두 구현해야 하는 압박도 컸다. 각 기능을 개발할 때마다 단순히 코드를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검색 로직 설계와 구현 방식, 응답 정확도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했다. 그만큼 팀 내부의 긴장감도 높았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지난해 9월 베타 버전, 12월에는 정식 오픈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창신 전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첫 AI 챗봇을 자체 구축했다는 성취감, 그 순간의 전율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 지난 4월 진행된 QRC 체험 이벤트

Q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한층 성장했다고

QRC를 통해 가장 크게 배운 것은 AI 기술의 내재화였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도입해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요한 기능을 직접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조부터 AI 기술의 기본 원리까지 폭넓게 학습했고, 온라인 강의와 자료를 활용해 팀 전체가 학습과 적용을 반복하며 역량을 쌓았다. 그 결과, 지금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도 임직원들의 요청을 내부에서 직접 반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IPA팀만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단순히 하나의 시스템을 만든 것을 넘어, 앞으로는 AI와 자동화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팀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현재 QRC를 'AI Agent'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지금은 QRC에 연차를 물어보면 관련 규정을 찾아주는 수준이지만, AI Agent 단계에서는 남은 연차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기간까지 스스로 올려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단순히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AI가 질문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실제 실행까지 수행하는 지능형 비서로 진화하는 것이다. 아직은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지만 QRC 구축을 통해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Q 팀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신입 팀원들과 함께한 지 1년이 되는 해다. 입사 직후부터 익혀야 할 기술과 과제가 많아 쉽지 않았을 텐데, 묵묵히 따라와 준 동료들에게 늘 고맙고 든든한 마음이다. 앞으로도 후배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함께 배우고 발전하는 팀으로 만들어가고 싶다.

CSG News Pick

해시태그로 보는 창신 #창_뉴_픽

창신의 주요 변화와 뉴스를 해시태그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Development

2025 도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창신의 기술력 빛나

창신의 기술력이 다시 한 번 전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했다. 지난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개최된 '2025 도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창신 리더십과 임직원들이 직접 방문했다. 이들은 출시된 제품은 물론, 출시 예정 제품에 대해서도 선수들의 피드백을 직접 들으며 제품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창신이 개발한 육상화는 금메달 23개, 은메달 22개, 동메달 18개를 기록하며 전체 135개 메달 중 약 47%를 차지했다. 특히 3,000m 장애물 달리기 종목에서는 메달리스트 전원이 'Dragonfly 2 Elite'를 착용해 주목을 받았다.



(왼쪽부터) T&F 문석준, Dimensions 양성원 그룹장, T&F 구성은, NIKE T&F Footwear Developer 조나단 라일리(Jonathon Riley), DSP 김미향 TDD, Development 1 장선욱 TDD, 정환일 회장님, 남충일 CEO, Development 2 오원재 TDD

#DE&I

제 8회 2025 WIN 포럼, CEO 기조연설

사단법인 WIN(위민이니노베이션)은 지난 9월 9일 서울 양재동 엘하우스에서 "기업내 다양성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제8회 WIN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남충일 CEO는 "창신은 여성 인재 성장을 지원한 공로로 올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며 "신발 제조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성과 중심의 문화를 정착시켜 왔고, 이를 통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제조 공정 중 하나인 신발 생산 현장에서 여성 리더들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며 성장해 왔으며, 이는 창신이 성과 중심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기업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9일 WIN 포럼에서 남충일 CEO가 기조연설을 하고있는 모습

CSG News Pick

해시태그로 보는 창신 #창_뉴_픽

창신의 주요 변화와 뉴스를 해시태그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Data Scientist

2025 Data Scientist Academy 발표회 진행

지난 8월 1일, 2025 DSA(Data Scientist Academy) 수료식이 포항공과대학교(이하 포스텍)에서 진행됐다. 본사와 해외법인에서 총 18개 팀이 참여해 약 5개월간의 학습과 평가를 거친 끝에, 최종 6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다.

본선 참가자들은 포스텍에서 일주일간 합숙하며 전문 강사진의 심화 피드백을 받으며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였고, 그 결과 CDC Costing팀의 'WoW'팀이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WoW, Way of working 일하는 방식에 돈(W)을 입히다는 의미를 담은 WoW팀은 'ITP* 이미지로 예측하는 견적원가'라는 주제로,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고객사로부터 전달받는 ITP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의 개요, 주요 부품명, 자재 정보 등만으로 실제 원가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현재는 샘플 제작 후 공정별, 부품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가를 산출하지만 이들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원가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데이터 분석의 완성도와 비즈니스 가치 창출 측면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ITP(Initial Tech Package): 개발 초기 고객사로부터 전달되는 신규 모델의 자재 정보, 신규 기술, 주요 특징 등이 포함된 전체적인 모델 개요



Costing팀의 곽영민님은 "평소 관심 있던 주제를 팀원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해 좋은 결과를 얻어 매우 뿌듯하다"며 "개발 초기에는 가격 비교를 위한 다양한 옵션 테스트가 많은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샘플 제작 없이도 부품 조합만으로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점이 의미 깊었다. 고객사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 더 정교하게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DSA는 2019년부터 사내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19명이 JMP, Tableau 등 전문 분석 과정을 수료하며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했다.



2025 Data Scientist Academy



- 1 **WoW** | 곽영민, 김태곤, 최가람
- 2 **NO. 923** | 이광민, 조민규, 차우영
- 3 **K-Hunters** | 이은혜, 지재범, 주현재
그냥테이프인줄알았조 | 권정순, 박상민, 장현섭

CSG News Pick

해시태그로 보는 창신 #창_뉴_픽

창신의 주요 변화와 뉴스를 해시태그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SHC

SHC X Zotefoams 합작 법인 협약 체결

SHC가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지난 8월 5일, 영국 폼 전문기업 조트폼스(Zotefoams)와 함께 베트남에 새로운 제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합작 투자(JVC, Joint Venture Company) 협약을 체결했다. 조트폼스는 신발 중창의 폼부터 친환경 포장재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SHC는 한국과 베트남 등에서 쌓아온 30여 년의 현지 운영 전문성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조트폼스의 현지 사업 정착과 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Ronan Cox(Zotefoams Group CEO)와 김세봄 SHC 대표가 협약 체결을 진행하는 모습



(왼쪽부터) Lynn Drummond(Chair of Zotefoams Group), Ronan Cox(Zotefoams Group CEO), 김세봄 SHC 대표, 정동훈 CSO

#수상

SAHA, 2025 부산다운 건축상 수상

본사 SAHA가 건축적 완성도와 공간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창신은 지난 9월 벡스코에서 열린 '2025 부산다운 건축상' 시상식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부산다운 건축상'은 부산의 도시정체성과 시대적 건축 가치를 반영한 우수 건축물에 수여되는 상으로, 올해는 총 54개 후보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주례 열린 도서관 등 8개 건물이 선정되었다. 지난해 오픈한 SAHA는 단순한 사무 공간을 넘어, 업무와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열린 구조와 유기적인 동선 설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프로젝트를 담당한 GP팀 강다훈님은 "첫 프로젝트라 부담도 컸지만, 새로운 시도를 더해가는 과정이 뜻깊었다"고 전했다.



GP팀이 9월 17일 벡스코에서 열린 '2025 부산다운 건축상' 시상식에서 수상하고 있다.



2025 부산다운 건축상 장려상을 수상한 본사 SAHA

Trend Catcher

[News Clipping | Vol.78]

고객사 및 신발 산업 트렌드와 뉴스 소식을 알아봅니다

As of September 2025

작성 | 경영기획팀

*타이틀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NIKE

NIKE, 트레일화 'ACG ULTRAFLY TRAIL' 출시 26년 봄 판매

- NIKE의 아웃도어 라인 ACG, 트레일 러닝* 특화 슈즈 'ACG ULTRAFLY TRAIL' 내년 봄 판매 예고
- 자연에서의 도전을 즐기는 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제품으로, NIKE 역사상 가장 장 거리인 3만 마일 이상의 러닝 테스트를 거쳐 개발된 것이 특징
- 줌X 폼과 탄소 섬유 플레이트가 뛰어난 반응성과 착화감을 선사하며, 험난한 지면에서도 최적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ACG ULTRAFLY TRAIL

*트레일 러닝: 포장된 도로나 트랙이 아닌 산이나 초원, 숲길 등 자연 속에서 달리는 운동

NIKE Newsroom

NIKE, 'Just Do It' 재해석한 새 캠페인 'Why Do It' 공개

- 도전과 실행의 상징인 'Just Do It' 슬로건을 새로운 세대에 맞게 재해석한 'Why Do It' 캠페인 공개
- 젊은 세대는 결과보다 동기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착안, '왜 시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자신만의 이유가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
- 최고마케팅책임자(CMO) 니콜 그레이엄(Nicole Graham) "젊은 세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조차 망설이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그들이 용기를 내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게 만들 것"이라 밝힘

매드타임스

경영사 / 산업

ASICS, 주가 사상 최고가 행진 "2029년 매출 1조 엔 달성 목표"

- 도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ASICS의 시가총액은 23년 8월 1조 엔 → 24년 7월 2조 엔 → 25년 8월 3조 엔으로, 1년간 약 1조 엔씩 증가 추세
- 매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8,000억 엔, 순이익은 36% 늘어난 870억 엔을 기록하며, 26년 목표 성과를 1년 앞당겨 올해 달성할 것으로 예상
- 주력 제품인 러닝화 판매의 증가와 프리미엄 라인 '오니츠키 타이거'가 트렌디한 브랜드로 부상한 것이 주요
- 최고운영책임자(COO) 도미나가 미쓰유키 "사업의 선택과 집중, 온라인 유통 강화 등의 효과로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며 "29년 매출 1조 엔, 영업이익률 20%를 달성할 것"이라 밝힘

한국경제

HOKA, 데일리 트레이닝을 위한 차세대 러닝화 'MACH X 3' 출시

- 장거리 러닝부터 템포런, 스피드 트레이닝까지 다양한 훈련 환경에 최적화된 'MACH X 3(마하 X 3)' 출시
- 고탄성 PEBA* 폼을 중창(미드솔)에 적용, 강력한 추진력과 함께 에너지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
- 통기성이 강화된 어퍼와 발목을 감싸는 웨이프로 장시간 러닝에도 안정적인 지지력과 쾌적함을 제공



MACH X 3

*PEBA: 가볍고 탄성이 뛰어난 열가소성 엘라스토머(TPE) 소재로, 주로 러닝화 스포츠 신발의 미드솔에 사용

스포츠경향

TALK²

Talk to each other. Exchange ideas. Stay connected.



본지는 창신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를 허락 없이 무단 복사,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